



“국내동포 정착지원, 새 아젠다로 삼겠다” - 이상덕 재외동포청장, 첫 재외동포 정책자문회의 열고 입장 표명... 자문위원들 다양한 의견 개진 -

- 재외동포청은 이상덕 청장 주재로 8.30.(금)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청사 36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.
 - 금번 회의에서는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(위원장)를 포함해 고상구 베트남 K&K 트레이딩 회장, 이진영 인하대 교수, 강성철 연합뉴스 재외동포 전문기자, 최병천 월드코리아 신문 편집이사, 이영환 전환기 정의위킹그룹 대표, 신연정 차세대위원이 참석했으며, 미국 거주중인 재외동포 김영길, 최미영 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.
- 이상덕 청장은 “국내거주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, 국내동포 정착지원은 재외동포청이 고민하고 체계를 잡아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책 아젠다” 라고 강조했다.
 - 아울러, “동포청은 외국인 대상 이민 정책과 차별화된 국내 동포 맞춤형 정책과 토탈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” 고 설명하면서, 위원들의 고견을 구했다.
- 자문위원들은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시의성과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, 동포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.

○ 특히, 박인기 위원장은 국내동포 정착 지원 정책의 중요과제로서, 동포청이 언어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△지자체 △교육 전문 기관 등과 협업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의했다.

○ 또한, 위원들은 국내동포의 출신국가, 연령 등이 다양한 만큼, 동포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종합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,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, 지자체와의 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.

○ 아울러, 위원들은 국내동포 정책은 국내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, 상시소통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1.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명단
2. 위원회 개최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장	홍명화	032-585-3128
		담당자	사무관	성진주	032-585-3143

(가나다순)

성명	소속 및 지위
강성철	연합뉴스 글로벌코리아본부 기자
고상구	베트남 K&K 트레이딩 회장
김영길	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24 운영위원
민미소	Maison Chen Law Group(호주) 변호사
박기태	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설립자 및 단장
박인기 (위원장)	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
신연정	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생
이영환	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
이진영	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
최미영	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 교장
최병천	월드코리안신문 편집이사